

미국의 인물 (제1편)

(美國의 人物)

<목차 안내>

들어가며.

제1장: [정치] JD 밴스.

제2장: [정치] AOC.

제3장: [군사]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4장: [법률] 마이클 코언.

제5장: [문학] 마크 트웨인 & F. 스콧 피츠제럴드.

제6장: [금융] 제이미 다이먼.

제7장: [사회] 말콤 X vs.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나오며.

<들어가며>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지난번까지 <영어사용설명서>, <미국사용설명서>, <미국법률설명서>라는 제목의 전자책(E-book) 3권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인물(美國의 人物) (제1편)>입니다.

미국에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출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인물들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 없습니다.

앞으로 집필의 기회가 될 때마다, 시리즈로 써보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써 7개 분야의 인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인물 소개에 덧붙여서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코멘트를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들은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으로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나열하는 것은 굳이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2. 이번 전자책 역시 너무 잘 쓰려고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급적 되도록 빨리 일단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전자책 역시 지루하고 산만한 문체 보다는, 가능한 쉽고 명확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나 직관에서 파생한, 또는 제 주관적인 시각에 기초한, 생생한 논평을 위주로 써보겠습니다.

최대한 실용서적 컨셉에 부합하는 문체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쓴다는 것이 단순히 알팍한 책을 쓴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3. 인물에 대한 소개 내용 보다는, 그에 덧붙인 저의 짧은 글들이 읽는 재미가 있거나, 사안에 따라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 대중들보다 미국 역사와 미국 사회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더 깊다면, 여러모로 오늘의 글들이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을 수 있다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독자 여러분께 오늘도 이처럼 인사를 드리게 되어 여러모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5일 (한국시간),

미국에서,
필자 드림.

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

제1장: [정치] JD 밴스.

첫번째 챕터로써, 미국의 현직 부통령인 JD 밴스에 대해 간단한 소개와 제 논평을 말해봅니다.

1. 소개.

자료에 따르면, JD 밴스는 84년생이고 변호사, 해병대, 작가, 정치인 등으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서부에 위치한 오하이오주 출신입니다.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등 이런 주들이 중서부에 위치한 주입니다.

중서부야말로, 미국의 어떤 극단이나 한쪽 귀퉁이에 지리적으로 위치한 주들보다는, 어떤 점에서 미국의 ‘스탠더드’, 즉 표준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어느 교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JD 밴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들이 비교적 그런 점들이 있다는 취지의 그 교수님의 언급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교수님이 미국 중서부쪽에서 박사 학위를 한 것으로 회상됩니다. 그 교수님도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아직도 생각합니다.

즉, 미국의 동북부나, 남부, 극서부 등의 지역들은 한쪽면으로 (지도상으로) 치우쳐 붙어있는데, 중서부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말해서 그런 지역들보다는 안쪽에 있는 것이겠지요.

JD 밴스는 오하이오주립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후 변호사 경력이 있습니다.

2016년에 출판된 <Hillbilly Elegy>라는 책이 히트를 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국적 인지도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고 회자됩니다.

<Hillbilly Elegy>라고 언급하고 보니, 저도 과거 어느 상점에 들렀을 때, 그 매대에서 그 책이 보이길래 집어들고 대략 몇군데 펴보다가 다시 접어서 제자리에 놓았던 적이 있다는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후에 제가 다시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JD 밴스는 원래 트럼프와 마찰이 있던 사이입니다. 특히 2016년 미국 대선때 마찰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후 첫번째 임기 동안에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2024년 7월에 개최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JD 밴스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합니다. JD 밴스는 역대 3번째로 젊은 나이의 부통령이라고 합니다.

정책성향으로는 대표적으로 낙태 반대, 동성결혼 반대, 총기규제 반대 등입니다.

혈통은 스코틀랜드-아일랜드 계통의 백인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성장기에 가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JD 밴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저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세부사항을 여기에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논평.

제가 밝히는 JD 밴스의 인물평의 일부입니다.

일단 JD 밴스는 화술(話術)이 좋습니다.

청산유수(靑山流水)입니다.

현직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언변(言辯)이 좋은 축에 속할 겁니다.

역대로 말하자면,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마바가 화술이 좋았는데, JD 밴스도 어떤 면에서는 그에 근접하는 화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모든 인터뷰를 볼 시간도 없고 입장도 아니라서, 모든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는 않았습시다만, 작년 대선 기간 동안 어느 특정 인터뷰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시에 트럼프-JD 밴스팀에 불리한 소재의 정치적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JD 밴스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그 인터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봤습니다.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언변과 정치적 수사(修辭)가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방어(防禦)를 하면서도, 방어에 머물지 않고 결국은 < 그것을 되감아서> 나중에는 정치적 공격(攻擊)으로 전환하더군요. 그런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후반에는 정치적 공격 시도로 전환한 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밴스는 ‘청산유수’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인정할만 합니다.

그 화술과 언변의 한계(限界)에 대해 지적 또는 평가하고자 합니다.

JD 밴스의 결정적 한계는 그 정치적 수사에 비해서 내용이, 즉 <알맹이>가 거의 없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잘해서, 미국정치나 미국역사와 사회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이나 통찰이 없는 사람이나 대중들한테는 먹힐지가 모릅니다.

그러나, 식견 있는 식자층에서 볼 때는 알맹이가 없다는 점이 금방 노출됩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 JD 밴스의 최대 단점이자 한계입니다.

덧붙이자면, 2028년 대선에서 제가 내보내보고 싶거나 지지 또는 지원할 후보와, (현시점에서 보자면) 맞붙을 가능성이 비교적 제일 큰 후보군 중의 한명이 JD 밴스입니다.

현직 부통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내 경선에서 비교적 좋은 입지에서 그가 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화당내 상황에서 그렇단 말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요.

제2장: [정치]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 코르테즈는 미국의 연방 현직 하원의원입니다.

그녀의 영어이름은 Alexandria Ocasio-Cortez인데, 그래서 줄여서 AOC로 자주 불리웁니다.

1. 소개.

89년 생이고, 활동가 출신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하원 의정활동을 시작했기에 미국 정가에서 비교적 신진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보스턴 대학을 졸업했고 한때는 뉴욕에서 바텐더 경력도 있습니다.

2018년에 민주당 경선에서 당시 10선 경력의 Joe Crowley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미국 나이로 만 29세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했기에, 역대 가장 젊은 나이의 여성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가 있으니, 더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만 소개는 줄입니다.

2. 논평.

제가 2028년에, 2032년에 대군(大軍)을 꾸리게 되면은, 그 선봉장(先鋒將)을 내세워야 할텐데, 이 여자가 그때 선봉(先鋒)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캐릭터(character)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싸움닭> 계통이기 때문에, 선봉에 내세우기 나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사전에 따르면, 선봉(先鋒)이란 부대의 맨 앞에 나서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를 말하고, 선봉장(先鋒將)이란 제일 앞에 진을 친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를 말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본진(本陣)에서 주군(主君) 오른편에 앉거나 때로는 서서 전략(戰略)을 구상,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해야 될 전략가이기에, 제가 칼을 두 자루 차고 긴 창을 높이 들고 말을 직접 타고 우리군대 맨앞에 달려나갈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선봉에 설 사람은 여러 사람 있을 것입니다. AOC도 그 중 한명으로 검토해 볼 만 하지요.

제3장: [군사] 야마모토 이소로쿠.

미국에 유명한 장군들이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 장군, 그랜트 장군, 리 장군, 셔먼 장군, 패튼 장군, 맥아더 장군, 밴플리트 장군, 웨스트모어랜드 장군 등등 독립전쟁, 남북전쟁, 제1차대전, 제2차대전, 한국전쟁, 월남전, 걸프전 등에서 이름 있는 장군들이 많습니다.

군사분야에서 어느 장군을 먼저 언급할까 잠시 생각하다가, 오히려 생각난 사람이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Yamamoto Isoroku) 제독이었습니다.

이 분은 아시다시피 일본의 제독이었습니다. (해군 소속임).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지면에서 느닷없이 일본 인물을 언급할까요?

첫째는 그만큼 인상적인 인물이었고, 둘째는 미국과도 관련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일본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인물이었다면,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요.

1. 소개.

20세기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려 1884년생이라고 합니다.

일본 제국 해군의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태평양전쟁 당시에, 애초에는 미국과의 개전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쟁발발이 불가피해지자 진주만 공습을 입안하고 진행시켜 일본에서 전쟁영웅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 주미 일본제국 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경력도 있어서 미국의 국력을 잘 알았던 미국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개전을 반대했다고 하지요.

아무튼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는 진주만 공격으로 유명한 사람일테지요.

2. 논평.

왜 그에 대한 소개를 할까요?

여기서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하고자 함이 그 의도가 아닙니다.

진주만 공격을 과연 미국이 몰랐을까?

이 점이 제가 궁금했던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세간에 알려진 사항은 당시 일본 함대가 일본에서 하와이 제도 방향으로 직진하지 않고, 그 항로를 태평양 상에서 옆으로 쪽 가다가 언젠가 남쪽 방향으로 틀어서 남하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들키지 않았다는 식의 설명입니다.

과연 그랬을까?

미국이 복잡한 나라이지만, 어떨 때 보면 지나치게 단순하고, 어떨 때보면 참으로 치밀한 구석이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자면, 과연 미국이 몰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만약이지만, 그때 미국이 알았다면 왜 모르는 척 했을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때 일본한테 선제공격(先制攻撃)을 당했기 때문에, 미국내 여론흐름을 반격(反擊)으로 돌려 태평양전쟁으로 진입한 측면에 대해, 호사가(好事家)들의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뿐만 아니라, 9.11테러에서도 어떤 점에서는 유사점이 제기됩니다.

과연 미국이 9.11 테러에 대해 몰랐을까?

그런 테러의 계획과 임박성에 대해 여러 말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쟁참전에 대한 명분(名分)과 정당성(正當性)이 미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막대한 인적 희생을 수반하고, 국가적인 대규모 자원을 동원하고 소모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국이 몰랐을까?

그것이 의문이라는 역사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기에,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제4장: [법률] 마이클 코언.

마이클 코언(Michael D. Cohen)은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1. 소개.

코언은 한때 트럼프의 최측근 중 한명이었습니다.

변호사이기에 온갖 법적 자문을 해주었겠지요.

그렇기에 온갖 뒤통수, 시쳇말로 각종 <설거지>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66년생이고 뉴욕 출신입니다.

한때 트럼프의 <해결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2. 논평.

제가 미국 언론을 보다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꼭 챙겨보는 사람이 마이클 코언입니다.

엄청나게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작년까지는 언론에도 자주 출연해서 反(반)드럼프 깃발을 들었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바람에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코언에 관한 것은 뭘 좀 더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됐던, 무슨 논평집이 됐던, 아무튼 마이클 코언에 대해서는 언젠가 기회가 되는대로, 뭐라도 추가적으로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제5장: [문학] 마크 트웨인 & F. 스콧 피츠제럴드.

문학분야를 잠깐 언급합니다.

1. 소개.

이 작가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각자 찾아보세요.

마크 트웨인 (Mark Twain).

F. 스콧 피츠제럴드 (F. Scott Fitzgerald).

2. 논평.

마크 트웨인은 미국의 작가입니다.

그에 대해 평할 때, 흔히 ‘잘못된 세기에 태어났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 말인 즉슨, 그만큼 시대를 크게 앞서나갔다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명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급의 작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미국에는 마크 트웨인이 있는 식이지요. 물론 유명한 다른 작가들도 있습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로 유명하지요.

저도 대학 재학 시절부터 좋아하는 작가였고 소설이었습니다.

여담인데요. ‘위대한’을 나타내는 ‘great’의 문맥상 어감에 대한 해석인데요.

어느 누가 얘기한대로, 그 어감은 (단순히 ‘위대한’ 이라기 보다는) ‘참 대단도 하신’ 정도가 비교적 더 정확한 어감인 것도 같습니다.

소설 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데 (즉, 대단한 면도 있다는..), 그 소설이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으로 나타내는, 즉 미국의 이상(理想)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문학적 작품인데,

소설 속의 개츠비가 특별한 면이, 또는 특별한 면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했던 (즉, 자신이 이상(理想)으로 생각했던)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3자 입장이나, 소설속의 문자만로는 알 수 없던 ‘그 어떤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록 슬픈 결말로 끝이 나게 되더라도) 그렇게 이상(理想)으로 추구했던 ‘그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6장: [금융] 제이미 다이먼.

이번에는 금융분야에 대해 잠깐 언급합니다.

1. 소개.

그 사람 이름을 언급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제이미 다이먼 (Jamie Dimon).

JP모건 체이스의 CEO이자 회장입니다.

2. 논평.

저도 미국 언론에 그 사람이 나올 때, (어느 특정 시점까지) 가끔씩 인터뷰를 들어보곤 했는데요.

예전이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즉, 처음에 가졌던 인식과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 사이에는 반전(反轉)이랄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에 나오면,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그 사람 인상이 험악하지도 않고, 또 일정 부분이지만, 월가의 잘못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반성도 촉구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봤을 때, <미상>식으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족>에 대한 얘기도 스스로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래서 <가족적인> 이미지도 챙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점에서 반전(反轉)을 이루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월가(Wall街)의 금융세력이 왜 그 사람을 대표선수격으로 언론에 출연시키고 대중매체에 내보냈을까?

그 인식의 반전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것은 월가의 본 모습이 그 사람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시쳇말로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월가의 잔인함(殘忍).. 잔인함을 넘어서는 잔혹함(殘酷)… 잔혹함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악랄(惡辣)한 범죄성(犯罪性)…

뭐, 그런 이미지가 그 사람의 너머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시각도,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여기서 소개만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천천히 나중에 그 의미를 되새기거나 판단해 보세요.

(여기에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언변도 좋고 인상도 서글서글한 편입니다. 월가 인물 치고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 말고, 그 너머의 어떤 세력들의 검은 <그림자>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제7장: [사회] 말콤 X vs.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번 장에서는 말콤 X vs.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합니다.

1. 소개.

말콤 X. (말콤 엑스). (Malcolm X).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

저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름만을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더 찾아보시구요.

저는 논평에 시간을 쓰겠습니다.

2. 논평.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유명인사이지요.

그리고 유명해진 인사이지요.

그리고 말콤 엑스도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또는 그 이름을 안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물 자체로 보면, 특히 똑똑함에 관한 점에서 보자면, 말콤 엑스가 그 언변이나, 시각이나, 지식이나, 깊이가, 대단했던 인물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사회는, 특히 미국의 권력층에서는 말콤 엑스보다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더 기리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을까요?

저도 미국에서 몇년 살아가기까지는 잘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역사나 문화를 (한국에서) 책으로 배우니까, 그런 점이, 그런 부족한 점이, 그런 한계점이 있었음을 뒤늦게나마, 뒤돌아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공휴일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얘기를 못하고요.

다만, 미국에서 만났던 어느 명석한 흑인 박사과정 학생의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서, 그 시각을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 친구 얘기로는, 미국에서, 특히 미국 지배층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더 띄우는 이유는 그것이 지배층의 이익과도 부합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폭력과 유혈로 미국내 인종문제를 해결하자고 선동하는 식은 아니었으니까 그랬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제 의견이 절대로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입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왔기에,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었지요.

그런데, 그 친구 말을 듣고 찬찬히 생각하고 그 의미와 전후맥락을 음미(吟味)를 해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줄입니다.

<나오며>

오늘은 <들어가며>, <전체 7장>, <나오며>로 구성된 전자책을 써봤습니다.

지난번에는 23장까지 썼는데, 오늘은 7장까지만 쓰게 되니, 좀 더 집필이 가볍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다른 소재, 다른 주제, 다른 시각, 또는 다른 표현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인물들에 관해서 다른 분야의, 또는 다른 사람들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필자 드림.

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